

노형욱 장관, “코로나-19, 최고 수준 경각심 갖고 총력 대응”

- 19일 수서고속철도역 찾아 방역태세 현장 점검·모든 역량 집중 당부 -

-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9일 수서고속철도역을 방문하여, 철도분야 코로나-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,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.
- 노 장관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주요역사 탑승전 발열체크, 방역게이트 운영 등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(주)SR로부터 보고 받은 뒤,
 - “최근 급속한 코로나-19 확산세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민생경제를 다시 한 번 크게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,
 - 수도권과 지역을 잇는 철도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-19 방역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”을 강조했다.
 - 또한, “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”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- 이어, 노 장관은 역사 출입 전 탑승객의 발열체크 과정, 바이러스 제거가 가능한 안심 방역게이트 운영 현장 등을 꼼꼼히 둘러본 뒤,
 - “하루 3차례 이상의 집중방역과 외부공기 유입을 위한 주기적인 환기 등을 통해 그동안 열차 내 코로나-19 전파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”고 강조하면서,
 - “방역수칙을 승객에게 잘 안내하고, 상시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방역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”을 거듭 당부했다.

2021. 7. 19.

국토교통부 대변인